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김 동 윤\*

## 目 次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의 제주소설
3. 해방~1960년대 제주소설
4. 1970~1990년대의 제주소설
5. 맺음말

## 1. 머리말

이 글은 20세기 제주소설의 전반적인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지는 것이다. '소설사'라고 하지 않고 '흐름'이라고 글의 제목을 정한 것은 제주소설들을 시기별로 개괄하여 살피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사나 문학사가 제대로 씌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비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제주의 소설사가 씌어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에 의해 개별 작품이나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제주소설'이란 '제주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주작가인가? 첫째,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살고 있는 작가들, 둘째, 제주에서 태어나 유소년 시절 이상을 제주에서 보내고 외지에 나아가 살고 있는 작가들, 셋째, 외지에서 태어났지만 제주에 정착해서 꽤 오랜 기일이 지나도록

\* 제주대 강사

살면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그들이다.<sup>1)</sup> 말하자면, 이 글에서는 현 시점에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나의 여부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제주인이라 할 수 있는나에 비중을 두어 제주작가를 규정한다는 것이다.<sup>2)</sup>

20세기 제주소설의 소설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기 구분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제주문학은 역사적인 맥락과 문학적 현상의 특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일제강점기 신지식인들의 활동과 제주문학의 태동(1900~1945)
- ②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 제주문학의 형성(1945~1969)
- ③ 산업화의 진전과 제주문학의 사회적 확대(1970~1999)<sup>3)</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에 근거를 두고 각 시기별로 전개된 소설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대상 작품으로는 단행본으로 출판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되, 두 번째 시기인 1960년대까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제주작가에 의해 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된 것은 사실상 세 번째 시기인 197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일제강점기의 제주소설

제주도는 소설적 전통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전문학에서도 제주에서 이루어진 소설과 관련된 기록물이나 연구실적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강정식은

- 
- 1) 김영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 제15호(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95), 256~258쪽.
  - 2) 추후 제주소설사가 씌어진다면 제주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라는 개념에다가 제주에서 씌어진 소설이라는 지리적인 기준의 개념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 3) 첫 번째 시기는 20세기 벽두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서 신학문을 습득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문학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다. 제주근대문학의 태동기라 할 만하다.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4·3과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란의 격변을 겪으면서 주로 동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던 기간에 해당된다. 제주문학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며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이루어진 산업화 경향과 정치적 상황 변화 등에 맞물리면서 제주사회가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험하는 양상을 보인 기간이다. 이때부터는 4·3을 다룬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주문학이 한국문학 속에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제주문학이 사회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간 시기라고 할 만하다. 김동윤,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영주어문』 제3집(영주어문학회, 2001) 참조.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제주도에서는 (….) 소설이나 판소리도 일반에게 향유되지 못하였다”고 전제하고 “전적조사에서 고전소설이 많이 읽혔던 흔적을 찾기 어려우며, 간혹 소설이 발견되는 일이 있어도 부녀자들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없는 듯하다”면서 본풀이가 소설의 구실을 대신한 측면이 있을 것<sup>4)</sup>이라고 보았다. 제주의 문학적 상황과 관련하여 상당히 주목되는 견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한반도에서는 18세기 이후 소설이 대중문학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설을 꽤나 즐겼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부녀자들, 중인들은 물론 하층민도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 문맹자들은 전기수(傳奇叟)들에 의존하여 소설을 향유했다.<sup>5)</sup> 이런 점들이 제주의 경우에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좀더 조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관가의 일부 벼슬아치들이 한반도에서 들어왔겠고, 아전들 중에는 제주사람들이 꽤 많았을 터인데, 이들과 그 주변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설을 향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주인으로서도 한반도에 나아가 벼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 소설을 접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제주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제주도에는 전기수 같은 이들이 혹시 없었겠는가.

아울러 위와 같은 견해가 20세기 초반까지도 유효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컨대 딱지본 소설들은 제주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읽힌 것이 아닐까. 신소설류나 근대소설들도 제주에 들어왔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20세기 초반에는 제주도에 소설독자층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으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런 독자층도 존재하고 있었고 신교육을 받고 신문학을 접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소설을 써 보려는 노력도 했을 법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930년대까지는 제주인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관심을 갖고 추적해 볼 부분이라고 여긴다.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시형의 「이여도(イヨ島)」(1944), 「신임교사(新任教師)」(1945), 이영복(여영구)의 「발당님(畑堂任)」(1942), 吳木篤彦의 「귀착지(歸着地)」(1941), 「양지바른 집(日向の家)」, 「한춘(寒春)」, 「궁지(矜持)」(1943), 「기반(羈絆)」(1943), 「휴월(虧月)」(1944), 「애(崖)」(1944), 「바다 멀리(沖遠く)」(1944), 「해녀(海女)」(1944), 「맥적(麥笛)」(1944), 「쌍엽(雙葉)」(1944), 「금선(琴線)」(1945) 등의 작품들이 나왔다.<sup>6)</sup> 『흐르는 정서(流ろ情緒)』라는 미간행 시집을 남긴 김이옥도

4)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7), 28~29쪽.

5)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태학사, 1995), 7~38쪽 참조.

누이동생 김소옥의 증언에 따르면 소설을 썼다고 한다.

「이여도」의 시간적 배경은 1936년부터 1941년까지, 공간적 배경은 제주를 중심으로 광주, 서울로 확대된다. S읍(제주읍)의 한 초등학교 신입교사인 남무송이 불우한 환경을 가진 죽미라는 학생을 돌보다가 그녀가 졸업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 관계에서 남녀관계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여성 심리에 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인데, 부분적으로 친일적인 요소도 있다. 이여도가 동방에 있다고 한 점, 남산의 조선신궁 앞에서 사랑을 맹세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발당님」의 시간적 배경은 1939년 경, 공간적 배경은 한경면 고산이다. 주인공은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욕심이 많은 한 노파다. 이 노파는 며느리와도 원만하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불화가 잦았다. 그 원인은 노파의 괴팍한 성격에 있다. 이런 노파가 어렵게 제수를 마련하고, 발 구석에 있는 당(堂)을 찾아가서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 주라느니 오래 살게 해주라느니 하는 개인의 소망을 들어 줄 것을 빈다. 기도가 끝나 돌아올 무렵 족제비가 나타나 어렵게 마련한 제수를 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밥그릇이 깨어지고, 곤밥(쌀밥)이 쏟아져 버렸다. 분한 생각을 되씹으며 돌아오다 발을 헛디더 도랑에 빠진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커녕 불운이 겹친 것이다. 토속적인 정취가 물씬 배어있는 작품이다.

「궁지」의 시간적 배경은 중일전쟁이 있었던 1930년대 중반, 공간적 배경은 제주읍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는 50대 초반의 부농이다.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와 과수원, 그리고 광양의 집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장남은 서울에 있는 전문학교에 보내고, 차남은 도내의 농업학교에 보낸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공부하던 장남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그 결과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그 때문에 조상 전래의 토지와 집을 처분하게 된다. 아버지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을 송두리째 잃게 된 것이다. 1930년대 제주읍내의 모습들이 비교적 잘 그려진 소설이다.

「이여도」, 「발당님」, 「궁지」 등에는 일제 말기의 제주도 상황이 그려져 있다. 이 소설들을 통해서 일제 말기 제주 사람의 의식과 정서를 짐작해 볼 수 있고, 일제

6) 호테이 토시히로, 「일제 말기 일본어 소설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58~65쪽; 김영화,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106쪽; 김영화, 「오정민은 누구인가」, 「제주문학 제31집(제주문인협회, 1998), 300~302쪽 참조.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강점기 제주 사람들의 지적 활동(知的活動)을 이해할 수 있다.<sup>7)</sup> 다만, 이 작품들이 모두 일본어로 발표되었다는 점이나 친일적인 요소도 더러 산견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번역되지 않은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에는 친일적인 요소가 좀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우리말로 옮겨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제주소설들을 좀더 발굴해 내기 위한 노력이 연구자들에게 요구된다.

### 3. 해방~1960년대의 제주소설

해방에서부터 1960년대말까지의 제주문학은 주로 동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동인들은 대체로 시 분야에 쏠려 있었다. 이 시기에 소설을 발표한 제주작가들로는 이영복, 강금중, 최병일, 최현식, 오성찬 등을 들 수 있다.

1942년에 『발당님』을 발표한 바 있는 이영복은 제주에서 간행된 종합교양지 『신생(新生)』에 『야로(夜路)』(1946)를 발표한다. 제주읍 성내에서 출발한 한림행 만원 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관덕정→서문다리→정뜨르비행장→하귀→고내봉→애월’까지의 여정이 나오는데, 애월에서 손님을 내려준 버스는 동산을 넘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만다. 사고가 나자 완장을 찬 조선사람이 일본말로 운전사를 꾸짖으며 행세한다. 그것을 본 한 청년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본말로 지껄이는 데 대해 반감을 갖는다. 친일잔재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덕정 옆과 정뜨르 비행장에서는 미군의 모습도 형상화된다. 해방 직후 제주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sup>8)</sup> 하지만 이영복은 그 이후 4·3을 겪으면서 그 여파로 인해 문학활동을 중단하는데, 이는 제주문단에서 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강금중은 제주시 삼양 출신으로 화북초등학교를 나와 10대 후반이던 1930년대 중반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사할린 등지에서 살다가 해방되던 해 귀국해서 충청남도 조치원에 정착한 작가다. 그가 이른바 등단 절차를 밟은 것은 1963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면서 작품집을 엮어내었다. 『해방의 날』(1946), 『어린 천사』(1948), 『난류』(1956)는 등단 이전에, 『미움의 세월』(1966), 『먼 여로』

7) 『이어도』, 『발당님』, 『금지』에 관한 논의는 김영화,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위의 책, 100~110쪽을 대독 참조함.

8) 『신생(신생사, 1946)의 ‘편집 소식’에는 “李永九氏 創作 夜路는 우리 故郷에서 나날이 보는 現實의 社會小説로 가장 대표적인 것”(62쪽)이라는 언급이 있다.

(1972)는 중단 이후에 낸 창작집이다. 강금종의 소설은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민족이 당했던 아픔을 그린 소설이고, 둘째는 농촌과 농민들의 세계를 그린 농촌소설이며, 셋째는 등장인물들의 반항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황을 다룬 소설이다.<sup>9)</sup>

이 가운데 처녀작 『해방의 날』은 자전적 장편소설이다. '순일'이라는 주인공은 작가 강금종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본으로 간 '순일'과 누이 '순희'가 일하면서 공부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던 중 5~6년 만에 둘째·셋째 누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제주에 있던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해 장례를 치르느라 잠시 귀향한다. '순일'은 사상 문제로 4년간 복역한 후, 15년 만에 연락된 화태(樵太)의 큰누나한테로 가서 함께 생활하다 귀국한다. 일제강점기 재일 제주인들의 삶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소설이다.

『신문화』<sup>10)</sup> 창간호에 발표된 최병일<sup>11)</sup>의 『오도롱 하라방』(1952)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화』에 수록된 소설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으로, 서민들의 삶을 소박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주인공 '오도롱 하라방'은 80대의 지관(地官)이다. 아내와 20년 전 사별한 그는 '함덕 할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고 잠에 빠진다. 사냥한 노루의 피를 마신 뒤 귀가해서 쇠약한 아내에게 어서 그 피를 마시라고 재촉하던 차에 꿈에서 깬다. 눈을 떠 보니 상제 이주머니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그는 일행들에게 망신당하여 혼자 서둘러 하산한다. “저놈우 하라방 두런생이로고(미쳤군)”, “술 취한 하라방이 흥청흥청 걸어왕게(걸어와서) 두렁청이(갑작이) 아지망고라(보고) 필 먹으렌 허는 말이 무신 말이우까” 등 제주도방언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9) 강금종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는 김영화, 『강금종론』, 위의 책, 241~250쪽을 참조할 것. 여기서는 김영화의 논의에서 작품명만 나오고 분석 대상에서 빠진 『해방의 날』에 관해서만 언급한다.

10) 한국전쟁기에 계몽목이 주관하여 제주에서 간행된 종합교양지로 3호까지 나왔다. 『신문화』에 관한 것은 김동운, 『한국전쟁기의 제주문학』, 『경인전쟁과 한국의 지역문학』(경남지역문학회, 2000)을 참조할 것.

11) 최병일의 신원은 확실하지 않다. 『신문화』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양중해나 최현식도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호테이 토시히로의 앞의 논문이 최병일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최병일은 조선식산은행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소설집 『梨の木』(성문당서점, 1944)을 낸 작가다. 향토적·토속적인 작품을 썼다(85쪽)는 것으로 보아 『오도롱 하라방』의 작가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최병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추적하고 검토한 후 별도로 논의해 볼 생각이다.

12) '오도롱'은 지금의 제주시 이호동을 말한다. '하라방'은 할아버지의 제주도방언으로 '하르방'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함경도 출신으로 한국전쟁 때 제주에 온 최현식은 195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루」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홍상』(1973) 등의 작품집을 낸 그의 의식과 정서에는 함경도적인 것과 제주도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다.<sup>13)</sup> 최현식의 소설은 자전적 요소가 많은데, 작가 자신으로 볼 수 있는 작품 속의 화자는, 함경도 사람이면서도 제주도 사람이기도 하다는, 반제주인(半濟州人)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오성찬은 1969년에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별을 따려는 사람들」로 당선됐다. 이 작품은 군대사회와 부대 주변을 싸도는 사람들의 생태를 한 ROTC장교의 눈으로 고찰한 소설이다. 작가가 군대생활에서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는 몇몇 작가들이 일정한 구심점 없이 나름대로 활동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독자나 비평가들로부터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아직은 문학적 성과가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초반에 4·3으로 인해 이시형이 사망하고 이영복이 작품활동을 중단한 사실은 제주소설의 흐름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다.

## 4. 1970~1990년대의 제주소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에서도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된다. 제주소설은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제주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조명되었으며 그것이 전국의 독자들로부터도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오성찬의 『탐라인』(1976)과 『한라산』(1979)에 수록된 「어부들」, 「돌쟁이」, 「돌하르방」, 「한라산」 등은 제주의 서민들의 삶을 주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주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담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성찬의 소설에서 읽을 수 있다.

오성찬의 「흐르는 고향」(1973) 등 일련의 고향 연작 소설은 제주 사회의 변동기에 종래의 공동체적 삶이 붕괴 과정을 그린 작품들이다. 1970년 전후는 제주도의 역사상 획기적인 시기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종래의 촌락 공동체적인 삶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13) 김영화, 앞의 책, 251~258쪽 참조

그것을 문학에 담아낸 것이 오성찬의 소설이다.<sup>14)</sup>

1970년대 이후에는 제주의 역사를 다룬 작품들도 많이 나왔고, 그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4·3을 다룬 소설들이다. 4·3소설은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제주소설의 중심에 있으면서 독자들도 비교적 많았다. 금기시되었던 역사에 대한 증언과 고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순이 삼촌』은 억울한 양민 학살을 문제삼음으로써 잊혀지기를 강요당해왔던 4·3의 비극적 역사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작품이다. 전국의 많은 독자들이 제주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었음을 『순이 삼촌』을 통해 충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북촌리 학살 사건’을 중심으로 4·3을 소설화한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제주도 민중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제 당당히 증언해야 할 때임을 역설하였다. 『해룡 이야기』(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등 창작집 『순이 삼촌』(1979)에 실린 일련의 소설들은 선량한 사람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고발과 증언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하는 현기영의 작품들이다. 현기영은 1980년대 들어서도 『아스팔트』(1986)의 『길』(1981), 『잃어버린 시절』(1983), 『아스팔트』(1984) 등을 통해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현길언은 『용마의 꿈』(1984), 『우리들의 스승님』(1985), 『닿아지는 세월』(1987)·『우리 시대의 열전』(1988) 등에 실린 『귀향』(1982), 『우리들의 조부님』(1982), 『지나가는 바람에』(1984), 『먼 훗날』(1984), 『신열』(1984), 『우리들의 어머니』(1985), 『땡 울음 소리』(1985), 『불과 재』(1985), 『껍질과 속살』(1986), 『미명』(1987) 등에서 4·3을 형상화한다. 『우리들의 조부님』은 한 노인을 중심으로 그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통하여 제주인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소설이다. 80대 중반의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4·3 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들의 사연을 말하는데, 그것을 ‘빙의(憑依)’라는 독특한 현상을 소재로 하여 밝히고 있다. 특히 4·3으로 인한 제주사람들의 한이 얼마나 골수에 사무쳐 있으며, 해한(解恨)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지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오성찬은 1980년대 들어 『사포에서』(1982), 『풀무에 관한 보고』(1984), 『공동묘지에서』(1984), 『크는 산』(1984), 『단추와 허리띠』(1986), 『표해』(1986), 『뒹에 치인 세월』(1986) 등에서 4·3을 소설화했다. 『단추와 허리띠』는 작가의 마을시리즈 취재 과정의 일을 바탕으로 소설화한 것이다. 빨치산들이 토벌대 중 한 사람을 굴

14) 위의 책, 30쪽.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속에 떨어뜨려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37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을시리즈 간행차 취재하던 이들에 의해 그 유골을 찾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4·3으로 인한 갖가지 사연이 제주 땅 곳곳에 묻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고시홍·김석희·오경훈·한림화 등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4·3을 소설화한 작가들이다.<sup>15)</sup>

4·3과 관련하여 그 전사(前史)라 할 수 있는 제주의 근대사를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방성칠란과 이재수란을 다룬 『변방에 우짖는 새』(1983)와 1930년대 잠머항쟁을 다룬 『바람 타는 섬』(1989) 등 현기영의 장편소설이 그것이다. 이 장편들은 저항하는 제주도 민중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1980년대는 현실 문제와 연관되는 제주의 역사를 다룬 소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제주소설은 최현식·오성찬·현기영·현길언<sup>16)</sup> 등 1980년대 이전부터 활동하던 원로·중견작가들이 지속적인 작업으로 성과를 이루어내는 가운데, 후발 작가들도 저마다의 색깔로 그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한층 원숙한 면모를 선보인다.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등단한 작가들의 경우, 제주에서 활동하는 고시홍·오경훈·한림화·정순희 등의 꾸준한 글쓰기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는 고원정·이석범·김석희 등이 왕성한 행보를 보였다. 반면 1990년대 들어 새로 등장한 제주작가는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참신한 신예들의 등단이 없이 고영기·김관후 등 시인으로 활동하던 나이 지긋한 문인들이 몇 편의 소설을 발표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sup>17)</sup>

1990년대의 제주소설은 1980년대까지 등단한 다양한 경향의 제주작가들이 각기 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4·3소설'의 경우, 『한라산』(1995)·『한라산의 노을』(1991)·『날개의 꿈』(1997) 등 현길언·한림화·오경훈의 장편과 『마지막 테우리』(1994)에 나오는 현기영의 일련의 단편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회적 호소력은 7,80년대의 4·3소설에 비해 미약하였지만, 문학적 성취라는 면에서는 의미를 갖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5)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탐라문화』 제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참조.

16) 현길언은 1979년 7월에 「성 무너지는 소리」가 초회 추천된 데 이어 1980년 6월 「급장선거」로 추천이 완료되었지만, 등단하자마자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그 뒤에 등단한 작가들과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17) 시를 쓰던 고영기가 1994년 「다랑봉에 달무지개 뜨면」이라는 소설을 『문예사조』에 발표하였으며, 역시 시인으로 활동하던 김관후가 1994년 단편 「하얀 운동회」를 『사람의 문학』에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들은 그다지 두드러진 작품 활동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아울러 1990년대 들어서 제주소설에서는 장편소설이 급증했다.<sup>18)</sup> 이것은 제주작가들의 새로운 면모와 함께 그 역량의 신장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작가들 중에서는 현길언·현기영 외에 『최후의 계엄령』(1991)·『대권』(1992)·『사랑하는 나의 연사들』(1993)·『마지막 대권』(1997)을 쓴 고원정과 『갈라의 분필』(1992)·『윈터스쿨』(1996)을 발표한 이석범의 활동이 비교적 두드러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는 이들의 소설이 좀더 대중적이기도 하거니와 사회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9)</sup> 현기영의 자전적 장편소설인 『지상에 순가락 하나』(1999)는 감각적인 신세대 문학이 판치는 1990년대 문학 속에서 퍼올린 본격문학의 정수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뛰어난 성장소설로,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제주인들의 삶을 잘 복원한 작품이다.

## 5. 맺음말

이상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논의한 바를 시기별로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의 경우 제주인들에 의해 소설이 발표된 것은 193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인데, 그 작품들은 모두 일본어로 발표된 것들이다. 친일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작품들도 있지만, 일제말기 제주도의 상황과 제주사람들의 의식·정서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경우 4·3과 한국전쟁 등 전란을 겪으면서 몇몇 작가들이 일정한 구심점 없이 나름의 영역에서 활동한 시기다. 아직은 독자나 비평가들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으며 문학적 성과도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1970년대부터는 제주소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는 4·3 등 제주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보인 작품이 비교적 많았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장편소설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18) 1980년대까지는 6편에 불과한 데 비해 1990년대에는 28편에 달하고 있다. 부록의 20세기 제주소설 목록 참조.

19) 김동윤, 「1990년대 제주소설의 성찰」, 『제주작가·창간호(실천문학사, 1998) 참조.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을 정리한 이 글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1930년대 이전의 소설이 전혀 발굴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당시의 제주소설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그 소설 현상에 대한 추정으로 그친 점, 제주소설의 유형이나 특성을 도출해 내는 데 소홀했다는 점, 어떤 일관적인 맥락을 따라 논의되지 않음에 따라 평면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부록> 20세기 제주소설 목록(20)

출판 시기	작가	작품(집)	출판사	비고
1946. 4.	강금중	해방의 날	청년문화사	장편
1948. 2.	강금중	어린 천사	아세아출판사	작품집
1966. 9.	강금중	미움의 세월	활문사	작품집
1972. 11.	강금중	먼 여로	월간총청사	작품집
1973. 1.	오성찬	별을 따려는 사람들	현대문학사	작품집
	4.	최현식 홍상	현대문학사	작품집
1976. 3.	오성찬	탐라인	창원사	작품집
1977. 3.	오성찬	포구	신아출판사	장편
1979. 5.	오성찬	한라산	정우사	작품집
	11.	현기영 순이 삼촌	창작과비평사	작품집
1983. 4.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창작과비평사	장편
1984. 6.	현길언	용마의 꿈	문학과지성사	작품집
	8.	오성찬 습작 우화	정음사	작품집
1985. 1.	최현식	흑묘일기	창원사	작품집
	11.	현길언 우리들의 스승님	문학과지성사	작품집
1986. 6.	오성찬	세한도	동광출판사	장편
	8.	현기영 아스팔트	창작과비평사	작품집
1987. 7.	고시홍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작품집
	9.	현길언 닿아지는 세월	문학과지성사	작품집
1988. 1.	고원정	거인의 잠	현암사	작품집
	3.	현길언 우리 시대의 열전	문학과비평사	작품집
	9.	고원정 희색의 손	고려원	작품집
	10.	오성찬 단추와 허리띠	지성문화사	작품집
1989. 4.	오성찬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실천문학사	작품집

20) 1994년까지는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에 정리된 작품집 목록을 참조하여 재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재출간한 작품(집)이나 선집(選集)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오성찬의 『크는 산』과 『추사 김정희』는 재출간된 것이며, 현길언의 『껍질과 속살』은 선집이다. 한편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은 작가의 4·3소설 자선집이지만 다른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은 「깊은 적막의 끝」 등이 실려 있으므로 별도의 작품집으로 간주했다. 이 목록에서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출판 시기	작가	작품(집)	출판사	비고
	7.	고원정 빙벽	현암사	장편
	9.	오성찬 모래 위에 세운 도시	지성문화사	장편
	11.	현기영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장편
	11.	김석희 이상의 날개	실천문학사	작품집
	12.	현길언 무지개는 일곱색이어서 아름답다	문학과지성사	작품집
1990.	1.	고원정 칼 한 자루의 사상	세계사	작품집
	8.	현길언 우리들의 조부님	고려원	작품집
	10.	고원정 대감들 청문회에 불러 오다	미학사	작품집
1991.	1.	현기영 위기의 사내	청맥	작품집
	3.	한림화 한라산의 노을	한길사	장편
	3.	고시홍 계명의 도시	현암사	작품집
	4.	현길언 투명한 어둠	나남	장편
	7.	고원정 최후의 계엄령	범조사	장편
	11.	김석희 섬에는 웅달샘	현대소설사	장편
1992.	2.	현길언 여자의 강	한길사	장편
	7.	고원정 숨어 있는 사람들	자유문학사	장편
	7.	고원정 대권	우리문학사	장편
	8.	이석범 갈라의 분필	우리문학사	장편
	11.	오성찬 칼과 보습	눈	장편
	12.	오성찬 그 짝글레기의 유품	장백	작품집
	12.	정순희 가지치기	책나라	작품집
1993.	2.	이석범 권두수 선생의 낙법	민음사	장편
	4.	한림화 꽃 한 송이 숨겨 놓고	한길사	작품집
	5.	오성찬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	푸른숲	작품집
	6.	고원정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	현대문학사	장편
	8.	현길언 배반의 꽃	문학과지성사	작품집
	12.	현길언 회색도시	고려원	장편
	12.	오경훈 유배지	신아출판사	작품집
1994.	1.	고원정 바다로 가는 먼 길	문학동네	장편
	2.	고원정 대한제국일제침략사	현암사	장편(미완)
	6.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창작과비평사	작품집

白鹿語文 第17輯(2001. 2)

출판 시기	작가	작품(집)	출판사	비고
	12. 최현식	먼 산	정우사	작품집
1995.	3. 현길언	한라산	문학과지성사	장편(미완)
	3. 고원정	내일은 없다	열림원	장편
	8. 고원정	외계인 살인 사건	한뫼	장편
1996.	8. 오성찬	겨울 산행	신원문화사	작품집
	11. 이석범	윈터 스킨	살림	장편
1997.	3. 고원정	마지막 대권	열림원	장편
	8. 정순희	그리운 이름 하나 지우고	책나라	작품집
	10. 오경훈	날개의 꿈	풍신	장편
	11. 현길언	보이지 않는 얼굴	열림원	장편
1998.	2. 고원정	돌아온 대통령	개미	작품집
	5. 한림화	아름다운 기억(겨울)	증명	장편
	11. 오성찬	푸른 보리밭	새미	소설집
1999.	1. 현길언	벌거벗은 순례자	지식산업사	장편
	1. 한림화	풀잎이 바다에게 눕기를	증명	장편
	3. 현기영	지상에 순가락 하나	실천문화사	장편
	6. 오성찬	종소리 울려퍼져라	담계	장편
	9. 김관후	어허령 달구	대한	작품집
	11. 오성찬	진혼 아리랑	담계	작품집
	11. 현길언	잊지 못할 일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밀알	장편
	12. 한림화	아름다운 기억(여름)	증명	장편